

대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이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View on Marriage, Children, Psychosocial Maturity, Social Pre-parental Role Recognition on Marriage Motivation in Colleger

박미라, 제남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Meera Park(minerva32@cs.ac.kr), Nam Joo Je(poo475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혼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도 대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였고,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결혼관은 3.35점이었고, 자녀관은 3.11점,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2.99점,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인식은 3.46점, 결혼동기는 2.81점이었다. 대상자의 결혼동기는 결혼관($r=.38, p<.001$), 자녀관($r=.50, p<.001$), 심리사회적 성숙도($r=0.25,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사회적 예비부모역할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beta=.407,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관($\beta=.329, p<.001$), 성별($\beta=-.184, p=.004$), 심리사회적 성숙도($\beta=.159, p=.009$), 종교($\beta=.126, p=.003$) 순이었다. 설명력은 52.1%이었다($F=26.01, p<.001$). 따라서 결혼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관과 결혼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성별과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동기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중심어 : | 결혼동기 |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 심리사회적 성숙도 | 자녀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marriage motivation in colleger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untermeasures for decrease in marriage rat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5 colleger from K-do.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st to October 10th, 2018 and analyzed using IBM SPSS WIN/21.0 to get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ubjects' view on marriage was 3.35 points, view on children was 3.11 points, psychosocial maturity was 2.99, social pre-parental role recognition was 3.46, and marriage motivation was 2.81. The marriage motivation of the subjec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iew on marriage ($r=.38, p<.001$), view on children ($r=.50, p<.001$) and psychosocial maturity ($r=0.25, p=.001$), and psychosocial matur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pre-parental rol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subjects' marriage motivation is their view on children ($\beta=.407, p<.001$), followed by view on marriage ($\beta=.329, p<.001$), Gender ($\beta=-.184, p=.004$), psychosocial maturity ($\beta=.159, p=.009$), religion ($\beta=.126, p=.003$). The explanatory power was 52.1% ($F=26.01, p<.001$). Therefore, a program promoting the views on children and marriage to improve marriage motivation, a customized program considering gender and religio, and further research promoting marriage motivation is needed.

■ keyword : | Children | Marriage Motivation | Social Pre-parental Role | Psychosocial Maturity |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NRF-2018R1C1B5043387)

접수일자 : 2018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18일

수정일자 : 2019년 01월 17일

교신저자 : 제남주, e-mail : poo4757@naver.com

1. 서론

1. 연구 필요성

대학생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로를 결정하고, 이성교제를 통한 결혼준비를 하는 등의 여러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이다[1]. 그러나, 높은 청년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습자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과 결혼 및 가정을 이루는 등의 발달 과업 완료가 어려워지고 있다[2].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 혼인건수는 26만 4천 5백 건으로, 2016년의 34만 3천 6백건보다 약 8만 건이 감소하였으며, 초혼 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3]. 이는 부모로부터의 심리경제적 독립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유추되며, 이는 미래사회의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심리사회적 성숙정도는 초혼 연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가족됨의 법적, 사회적인 인정과 소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심리적 지지 및 자녀출산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배우자선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결혼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혼관은 애정과 사회문화 및 경제적 특성 등의 복합된 가치들이 내재된 것으로, 결혼동기, 배우자 선택, 결혼 후의 가정설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4].

한편, 전통사회에서는 당연히 되었던 결혼이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일과 가정의 병행에 커다란 부담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상황과 성향, 결혼동기에 따라 결혼 여부와 결혼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혼동기는 사랑의 실현, 성적욕구 충족, 경제적·정서적 안정유지, 자녀 출산의 기회, 성인으로서의 신분획득, 사회적 기대의 부합 등이 있는데[5], 자신이 가지는 결혼동기에 따라 결혼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요즘 과거에 비해 결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나 동시에 결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낭만적이어서,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하고[6]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꼭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덩크족(Double Income No Kids, DINK)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7].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에 함께 출산율은 1.05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2001년 이후 1.3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8]. 저출산율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위협적인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부됨과 부모됨에 필요한 대처기술을 익히지 못하였고,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나 젊은 부모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부와 부모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9], 준비된 부부 혹은 부모는 각자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며, 역할 적응과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어[10], 결혼이 이뤄질 수 있는 대학생의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결혼가치관이나 결혼의향의 실태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1][12]. 이 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13][14], 가족 변인[15][16], 개인·심리 변인[17]이며, 각각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였다.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막상 이들에 대한 결혼가치관과 부모인식, 결혼동기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8]. 그러므로, 미래의 혼인과 출산 당사자들인 대학생의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을 예비부모가 될 대

학생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결혼관을 통하여 결혼동기를 높이고, 동시에 출산의지를 높이는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을 증가를 위한 교육컨텐츠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을 증가를 위한 교육컨텐츠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과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1)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자
- 2)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4][15][16]를 참조하여 성별, 종교, 가족관계, 현 거주지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2 결혼관

결혼관은 Lee[14]의 결혼의식 척도를 수정한 Kim과 Cho[17]가 작성한 20문항을, Won[19]이 보완한 2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Won[19]의 연구에서는 안정-낭만적 결혼관 Cronbach's $\alpha=.67$, 보수-도구적 결혼관 Cronbach's $\alpha=.58$, 소극-배타적 결혼관 Cronbach's $\alpha=.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정-낭만적 결혼관 Cronbach's $\alpha=.59$, 보수-도구적 결혼관 Cronbach's $\alpha=.73$, 소극-배타적 결혼관 Cronbach's $\alpha=.81$ 이었다.

3.3 자녀관

자녀관 측정도구는 Lee[20]과 Bae[21]의 설문지를 Bak[22]이 수정·재구성한 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다. Bak[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3.4 심리사회적 성숙도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Seo와 Hwang[23]이 개발하고, Ho[24]가 수정·보완한 59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3.5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은 Shin[25]의 사회적 부모 역할과 태도 측정도구를 Yeol[26]가 재구성한 23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eol[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3이었다.

3.6 결혼동기

결혼동기 측정 도구는 Cho[27]의 설문지를 Lee[28]가 재구성한 7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동기가 높다. Lee[2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4이었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 1일~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명한 대학생 17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0 프로그램[29]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수준(α) .05, 통계적 검정력($1-\beta$) .95, 예측변인 8-9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66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부를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

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152명(13.1%), 남성 23명(86.9%)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91명(52.0%), 없는 경우가 84명(48.0%)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136명(77.7%), 조부모 및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가 19명(10.9%), 형제자매가족이 11명(6.3%), 기타 유형이 9명(5.1%)이었다. 현재 거주유형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62명(35.4%), 기숙사 105명(60.0%), 기타 8명(4.6%)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52(86.9%)
	Male	23(13.1%)
Religion	Yes	91(52.0%)
	No	84(48.0%)
Family type	With parents	136(77.7%)
	With grandparents and parents	19(10.9%)
	With brothers and sisters	11(6.3%)
	Etc.	9(5.1%)
Current residence type	With parents	62(35.4%)
	Dormitory	105(60.0%)
	Etc	8(4.6%)

2.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는 [Table 2] 같다.

결혼관은 평균 3.35점(5점 만점)이었고, 하부영역으

로 안정-낭만적 결혼관이 평균 3.9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수-도구적 결혼관이 평균 2.8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관은 평균 3.11점(5점 만점),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평균 2.99점(5점 만점),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인식은 평균 3.46점(5점 만점)이었다.

결혼동기는 평균 2.81점(5점 만점)이었다. 결혼 동기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인생의 동반자를 위해서/사랑하기 때문에’이 평균 4.12점(5점 만점)이었고, ‘남들도 대부분하니가/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평균 1.9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Degree of Thinking about marriage, Thinking about child, Psychosocial maturity,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and Marriage motive (N=175)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Thinking about marriage	1-5	3.35±0.34	2.60	4.15
Stable/romantic	1-5	3.91±0.42	2.83	4.83
Conservative/instrumental	1-5	2.83±0.63	1.14	4.43
Passive/Exclusive	1-5	3.39±0.69	2.00	5.00
Thinking about child	1-5	3.11±0.68	1.22	5.00
Psychosocial maturity	1-5	2.99±0.26	2.34	3.75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1-5	3.46±0.27	2.78	4.78
Marriage motive	1-5	2.81±0.63	1.27	4.29
Because it helps me	1-5	3.01±0.98	1.00	5.00
To get economically stable	1-5	2.82±0.99	1.00	5.00
I want a companion of life / because I love you	1-5	4.12±0.77	2.00	5.00
To meet sexual needs	1-5	2.70±1.00	1.00	5.00
I want to have a child	1-5	2.85±1.23	1.00	5.00
Because most of the others are / By external pressure	1-5	1.98±0.95	1.00	5.00
To be independent from parents	1-5	2.13±1.05	1.00	5.00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결혼관(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결혼동기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결혼관(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은 [Table 3]과 같으며,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Table 4]과 같고, 사회적 예비부모

역할 인식과 결혼동기는 [Table 5]과 같다.

안정-낭만적 결혼관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보수-도구적 결혼관의 경우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25, p=.023$), 사후검증 결과,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 ‘부모와 함께 사는 핵가족’보다 유의하게 보수-도구적 결혼관이 높았다. 소극-배타적 결혼관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7.33, p<.001$).

자녀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05, p=.003$),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4.43, p=.005$), 사후검증 결과,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 ‘부모와 함께 사는 핵가족’과 ‘형제가족’보다 유의하게 자녀관이 높았다.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경우, 제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의 경우는 제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결혼동기는 성별($t=4.32, p<.001$)와 종교 유무($t=-2.34,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재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45, p=.025$), 사후검증 결과, ‘기타’가 ‘기숙사’보다 유의하게 결혼동기가 높았다[Table 5].

4.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관(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결혼동기의 상관관계는 [Table 6]와 같다.

결혼동기는 결혼관 중 안정-낭만적 결혼관($r=0.35, p<.001$), 보수-도구적 결혼관($r=0.61,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소극-배타적 결혼관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0.23, p<.003$).

결혼관 중 안정-낭만적 결혼관은 보수-도구적 결혼관($r=0.33, p<.001$), 자녀관($r=0.26,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보수-도구적 결혼관은 소극-배타적 결혼관과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22, p=.004$), 자녀관과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r=0.49, p<.001$). 소극-배타적 결혼관은 자녀관과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r=-0.39, p<.001$).

Table 3. Thinking about marriage(Stable – romantic, Conservative – instrumental, Passive – Exclusive)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Thinking about marriage					
		Stable – romantic		Conservative – instrumental		Passive – Exclusiv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85±0.59	-0.55 (.587)	2.96±0.51	1.11 (.265)	2.80±0.36	-7.33 ($<.001$)
	Female	3.92±0.39		2.80±0.65		3.47±0.68	
Religion	Yes	3.93±0.39	0.83 (.409)	2.81±0.67	-0.23 (.819)	3.36±0.77	-0.55 (.581)
	No	3.88±0.33		2.84±0.59		3.41±0.59	
Family type	With parents (a)	3.91±0.43	0.34 (.799)	2.76±0.64	3.25 (.023) (b))(a)	3.42±0.71	0.76 (.519)
	With grandparents and parents (b)	3.94±0.33		3.23±0.56		3.23±0.48	
	With brothers and sisters (c)	3.82±0.61		2.83±0.60		3.18±0.85	
	Etc. (d)	4.00±0.14		2.95±0.40		3.41±0.39	
Current residence type	With parents	3.90±0.41	0.41 (.663)	2.82±0.55	1.63 (.199)	3.40±0.57	0.21 (.811)
	Dormitory)	3.90±0.43		2.80±0.68		3.39±0.76	
	Etc	4.04±0.40		3.21±0.47		3.23±0.46	

Table 4. Thinking about child, Psychosocial maturity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Thinking about child		Psychosocial maturity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51±0.56	3.05 (.003)	3.04±0.26	1.02 (.309)
	Female	3.05±0.56		2.98±0.26	
Religion	Yes	3.12±0.70	0.16 (.875)	2.97±0.23	-0.98 (.327)
	No	3.11±0.66		3.01±0.28	
Family type	With parents (a)	3.08±0.65	4.43 (.005) (b))(a),(c)	3.00±0.26	1.25 (.292)
	With grandparents and parents (b)	3.55±0.65		2.98±0.23	
	With brothers and sisters (c)	2.70±0.92		2.86±0.31	
	Etc. (d)	3.22±0.50		2.93±0.28	
Current residence type	With parents	3.00±0.59	1.66 (.193)	3.03±0.26	1.79 (.170)
	Dormitory)	3.16±0.73		2.97±0.25	
	Etc	3.38±0.54		2.99±0.26	

Table 5.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Marriage motive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Marriage motiv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04±0.27	-1.45 (.150)	3.21±0.45	4.32 ($<.001$)
	Female	3.47±0.27		2.75±0.64	
Religion	Yes	3.49±0.24	1.46 (.146)	2.70±0.61	-2.34 (.020)
	No	3.43±0.30		2.92±0.64	
Family type	With parents (a)	3.49±0.27	2.66 (.050)	2.78±0.64	1.53 (.208)
	With grandparents and parents (b)	3.38±0.31		3.05±0.58	
	With brothers and sisters (c)	3.28±0.32		2.57±0.72	
	Etc. (d)	3.44±0.16		2.73±0.48	
Current residence type	With parents (a)	3.46±0.27	0.64 (.530)	2.84±0.56	3.45 (.025) (c))(b)
	Dormitory (b)	3.47±0.28		2.74±0.65	
	Etc (c)	3.36±0.23		3.36±0.66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inking about marriage, Thinking about child, Psychosocial maturity,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and Marriage motive (N=175)

	(1)	(2)	(3)	(4)	(5)	(6)	(7)
	r(p)						
Thinking about marriage							
Stable – romantic (1)	1						
Conservative – instrumental (2)	0,33 (.001)	1					
Passive – Exclusive (3)	-0,09 (.232)	-0,22 (.004)	1				
Thinking about child (4)	0,26 (.001)	0,49 (.001)	-0,39 (.001)	1			
Psychosocial maturity(5)	0,05 (.534)	0,13 (.094)	0,06 (.448)	0,06 (.435)	1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6)	0,14 (.075)	-.02 (.749)	0,10 (.174)	0,10 (.171)	0,20 (.008)	1	
Marriage motive (7)	0,35 (.001)	0,61 (.001)	-0,23 (.003)	0,50 (.001)	0,25 (.001)	-0,11 (.136)	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Marriage motive (N=175)

	B	SE	β	t	p
Conservative – instrumental	2,96	,445	,422	6,64	<.001
Thinking about child	1,42	,415	,218	3,43	.001
Psychosocial maturity	2,70	,929	,157	2,90	.004
Religion	1,27	,485	,143	2,62	.010
Stable – romantic	1,69	,601	,161	2,81	.006
Gender	-1,68	,740	-.128	-2,27	.024
R ² = .521, F=30,43, p<.001					

자녀관의 경우는 결혼동기를 제외한 다른 변수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며($p>.05$),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사회적 예비부모역할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r=.20, p=.008$)[Table 6].

5.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동기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성별, 종교, 거주형태, 결혼관(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

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71-98, VIF 1.02-1.41으로, 공차 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976$ 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수-도구적 결혼관($\beta=.422,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관($\beta=.218, p=.001$), 심리사회적 성숙도($\beta=.157, p=.004$), 종교($\beta=.143, p=.010$), 안정-낭만적 결혼관($\beta=.161, p=.006$), 성별($\beta=-.1283, p=.024$) 순이었다. 설명력은 52.1%이었다 ($F=30.43, p<.001$)[Table 7].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이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결혼관은 평균 3.35점(5점 만점)이었고, 결혼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6, p=.006$). 하부영역으로 안정-낭만적 결혼관이 평균 3.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극-배타적 결혼관은 평균 3.39점, 보수-도구적 결혼관은 평균 2.83점으로 가장 낮았다. 결혼관의 경우 남녀 모두 안정-낭만적 가치관이 가장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보수-도구적 결혼관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소극-배타적인 결혼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된 Park[30]의 연구에서도 소극-배타적인 결혼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최근 가치관의 변화로 여학생들은 결혼보다 일과 자기 계발이 중요하여 결혼관에 대해서는 소극-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결혼관에서 안정-낭만적 결혼관은 높으나 결혼율이 높은 시기는 아니므로 결혼적령기를 대상으로 결혼관의 변화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고, 결혼관과 혼인율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Lee[31]과 Park[3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자녀관은 평균 3.11점(5점 만점)이며 남자는 3.51점, 여자는 3.05점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녀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Kim과 Hong[33]과 Yoon[34]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실제적인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할 여성의 자녀관이 낮은 것은 출산을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이 양육보다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을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고한 Obradovic[35]의 결과와 유사하

였다. 다른 도구로 측정된 결과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Choi와 Lee[36]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3세 이상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Lee 등[37]의 연구에서는 3.71점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의 자녀관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4.43, p=.005$),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 ‘부모와 함께 사는 핵가족’과 ‘형제가족’보다 유의하게 자녀관이 높았다.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인 경우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보다 자녀 돌봄이 원활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을 것이며, 이를 지켜본 대학생들은 그들의 자녀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평균 2.99점(5점 만점)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같은 도구로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38]에서 보건계열은 2.98점, 비보건계열은 2.9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Kim과 Kim[39]의 연구에서는 3.39점(5점만점)이었고, Park, Kim과 Gwan[40]의 연구에서는 3.38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38]의 연구 대상자는 1학년 대학생이며, 대학생 전체를 조사한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이는 아직 1학년 학생들은 심리사회적으로 미성숙하며, 대학생이 자기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대학교육에서 이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Park과 Park[3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은 평균 3.46점(5점 만점)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은 3.04점, 여학생은 3.47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같은 도구로 측정된 Park[30]의 연구에서도 남자 3.45점, 여자 3.46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Yeol[26]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없으며,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 예비부모들이 현재의 가정에서는 지금 그들이 습득한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태도는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말한 선행연구[10][17][19]를 토대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대학생 예비부모들이 역할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과정에서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동기는 평균 2.81점(5점 만점)이며, 남학생이 3.21점, 여학생이 2.75점으로 남학생의 결혼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4.32, p<.001$). 종교가 있는 경우 2.70점, 없는 경우 2.92점으로 결혼동기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34, p=.020$). 또한 현재 거주형태에 따라 '기타'가 '기숙사'보다 유의하게 결혼동기가 높았다($F=3.45, p=.025$).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3.68점, 여학생 3.46점으로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결혼 적령기인 25~26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동기 중 '인생의 동반자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동기에 관한 Lee[41]의 연구에서는 '가계계승을 위해서', Yoon[4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Kim[43]의 연구에서는 '결혼은 남녀의 애정으로 결합된 새로운 가정 설립을 위한 것이다'가 가장 높았다. 이는 결혼동기가 과거 가족중심에서 오늘날 개인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고[44] 결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낭만적이어서, 최근 만혼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45]. 결혼동기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실적인 결혼 준비 미흡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45].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는 적극적인 이성교제 등을 통해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첫 시기이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전 현실적인 준비교육과 결혼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결혼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결혼동기는 결혼관($r=.38, p<.001$), 자녀관($r=.50, p<.001$),

심리사회적 성숙도($r=0.25,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사회적 예비부모역할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beta=.407,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관($\beta=.329, p<.001$), 성별($\beta=-.184, p=.004$), 심리사회적 성숙도($\beta=.159, p=.009$), 종교($\beta=.126, p=.03$)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3.5%이었다.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다고 볼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 때문이라 사료된다[14]. 그러므로 출산의 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결혼보다 자신의 자아성취 및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결혼관의 변화는 혼인을 감소와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직 등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결혼과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로 나가기 전 대학생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의 교과외프로그램이나 특강의 일환으로 부모되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올바른 결혼관과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과 사회적 예비부모역할 인식 형성을 도와주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기대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감소와 결혼을 증진대책을 위한 원인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율 증가를 위한 교육컨텐츠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결혼동기는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사회적 성숙

도는 사회적 예비부모역할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결혼동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이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관, 성별, 심리사회적 성숙도, 종교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52.1%이었다. 자녀관과 결혼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녀관과 결혼관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정책과 홍보만으로 저출산과 결혼율 감소 문제 해결이 어렵고, 결혼동기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최근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긍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 특히 양성평등적인 결혼 생활이 형성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D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지역을 확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R.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5th ed)*, McKay, 2012.
- [2] H. S. Le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 [3] Statistics Korea,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2017*, 2018.
- [4] J. S. Park and S. G. Yeoum,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Marriage Value in Un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3, pp.1633-1651, 2015.
- [5] Y. S. Lee, D. J. Yoon, Y. K. Kang, J. M. Lim, S. C. Kim, and J. C. Kim, *Social Work with Families*, Yangseowon, 2010.
- [6] A. S. Elizabeth and H. G. Lawrence,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s: Are Unrealistic Beliefs Changed by Integrative Teaching?," *Famally Relations*, Vol.49, No.1, pp.71-76, 2000.
- [7] S. S. Lee, "Causes of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Option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11, pp.5-17, 2006.
- [8] Statistics Korea, *Birth and Death Statistics Provisional Results 2017*, 2018.
- [9] G. S. Lee, "The Changes on Marital Communica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6, No.1, pp.167-187, 1998.
- [10] O. B. Chung and S. H. Jung, *Parent Education: Understanding Parental Role*, Yangseowon, 2000.
- [11] J. S. Joo, Y. T. Kim, C. S. Song, C. K. Son, and C. S. Lim, *2013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3.
- [12] S. S. Lee and H. J. Choi, "Comparative Study on Work and Life Balance Focused on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OECD Counti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66, pp.119-132, 2010.
- [13] H. Y. Kim and B. Y. Sun, "Women's Late marriage and Marriage Intention,"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12, No.2, pp.3-35, 2011.
- [14] B. R. Lee,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aster's thesis, 2012.
- [15] M. J. Chin and H. E. Chung,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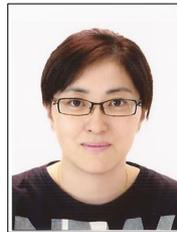
-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3, No.3, pp.31-51, 2012.
- [15] S. H. Moon, "Effects of Marriage and Family Values on the Marriage Intention and Expected Marriage Age of Unmarried Young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3, pp.5-25, 2012.
- [16] J. Y. Kim and H. S. Cho, "The Effect of Dating Relationship, Marriage Perspectives, and Marriage Images on College Students Expected Age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2, pp.123-143, 2014.
- [17] S. Y. An, H. J. Kim, H. J. Park, and T. R. Kim,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II : Comprehensive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 [18] A. R. Won, *The Study about Variables Influencing Marriage Intentions and Values of Unmarried Men and Women*,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19] M. R. Lee, "Effect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on Unmarried Women's Motivation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Vol.14, No.3, pp.75-96, 2009.
- [20] S. B. Bae,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on the Childbirth Motives : Focusing on Full-time Unmarried Wome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21] H. U. Bak, *A Study on the Effects of Cognition about Low Fertility on Childbirth Will*,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22] B. Y. Seo and S. M. Hwang, "A Study on the Aging of Psychological Socie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Research, Vol.28, pp.1-31, 1993.
- [23]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4] H. Y. Shin, *Program Development for Preparent Education*, Dong-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7.
- [25] S. N. Yeo, *The Effect of Awareness about the High School Student's Marriage and Childbirth to Pre-parent's Role*, Dongsh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26] Y. J. Cho, *Research on Female College Students' Views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ngsh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27] S. G. Lee, *Development of Structural Models regarding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on Marriage*, Daegu Haany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 [28]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nd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29] S. H. Park,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Concept of Marriage on their Social Pre-parent Role*,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7.
- [30] Y. K. Lee, *A Study of the Effect of Unmarried Adults' Adult Attachment to Marriage Value*,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31] J. K. Park, *A Study on View on Marriage and Perception on Parenthood among College Students*, Gach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32] H. Kim and Y. S. Hong.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 Vol.14, No.1, pp.13-24, 2013.
- [33] M. R. Yo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High School Students' View Points of Marriage and Children : Focusing on the Demographic Social Variables and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6.
- [34] J. Obradovic and M. Cudina-Obradovic, "Work Stress and Marital Quality in Dual Earner Couples : A Test of Three Mediation Models," *Drustvena Istrazivanja: Casopis za Opca Drustvena Pitanja*, Vol.22, No.4, pp.673-691, 2013.
- [35] H. K. Choi and S. H. Lee,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587-595, 2014.
- [36] E. J. Lee, Y. S. Kang, and J. H. Park. "A Study on Pre-par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4, pp.1566-1573, 2012.
- [37] H. I. Park and M. R. Park, "The effect on Sexuality and Psychosocial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in Marriage and Sex Cla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509-516, 2018.
- [38] G. S. Kim and B. M. Kim, "Convergent Influence of Ego-Resilience, Psycho-Social Maturity on Stress Coping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3, pp.375-383, 2017.
- [39] J. S. Park, B. M. Kim, and Y. E. Gwan, "Influence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on Sexual Assertivenes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9, pp.461-470, 2016
- [40] S. H. Lee, "A Study of Marital Viewpoints of Unmarried Korean Bank Employees,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Cogito*, Vol.18, pp.371-401, 1979.
- [41] D. W. Yoon, (*A Study of Marriage-Ideology Reflected on the View of Marriage*, Pusan University, Master's thesis, 1978.
- [42] M. S. Kim, *A Study of Marital Evaluation Viewed by Korean Younger Generation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High School Girl's Group and Working Girl's Group*, Ewh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7.
- [43] S. Coontz, *Marriage, a history : How love conquered marriage*, penguin USA, 2006.
- [44] U. H. Ju and G. S. Yoo, "The Effects of Romantic Beliefs on Motivation of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7, No.6, pp.125-139, 2009.

저 자 소 개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신생아관리,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

제 남 주(Nam Joo Je)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신·분만, 수태 전 관리, 여성 건강, 성교육, 생명의료윤리